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에 다 같이 참여합시다



김 건 태 위원장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지난 2003년 11월에 제1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을 선출한데 이어 올해 10월 17일에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우리 양돈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 축산농가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의무자조금을 국내 최초로 양돈에서 시작한 결과, 뒤를 이어 한우, 낙농에서도 의무자조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계 전체에서도 양돈자조금을 본 받아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양돈자조금으로 국산 돼지고기 웰빙부위(안심, 등심, 뒷다리살) 소비촉진사업을 실시하면서 TV·라디오광고 등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에게 삼겹살 이외에 돼지고기의 다양한 부위를 인지시키는 한편, 삼겹살 위주로 편중되었던 소비패턴을 다양한 부위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양돈산업은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개방경제 하에서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에 다 같이 참여합시다

이번 제2기 대의원선거는 전국 양돈농가들에게 그동안 양돈자조금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WTO, FTA 등 개방경제 하에서 양돈농가 스스로가 우리 양돈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어렵고, 힘들게 도입된 의무자조금제도가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납부자인
양돈농가의 노력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도 필요합니다.

있다는 경제논리에 밀려 FTA 빅딜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로 수입되는 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와 경쟁을 해야한다는 당면과제 이외에도 국내에
서 생산되는 대체 품목들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하는 시장환경,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소비자들의 요
구사항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문제는 물론, 소모성질환 근절문제, 가축분뇨 처리문제,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문제 등 우리 양돈산업이 넘어서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국의 양돈인 가족 여러분!

양돈자조금은 양돈농가 스스로 우리 양돈산업을 지키고, 이끌어가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만
들어진 자구책이며, 개방경제 하에서 우리 양돈산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제도적 장치일 것입니다.

양돈자조금의 투명하고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양돈산업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올바른 가치
관 정립이 되어 있는 양돈농가가 대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가 아
닌 양돈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셔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양돈자조금이 조기에 정착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
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는 10월 17일에 실시할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에 모두 참여하시
어 우리 양돈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바른 일꾼이 선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양돈